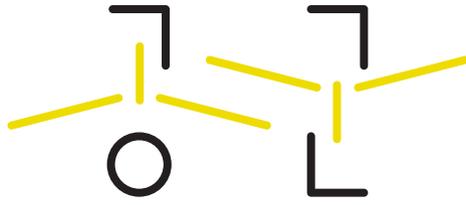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2
03
5 2 5

<http://afz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초임 공군인, 그들의 봄
12	기획특집	공군 미래기획센터
<hr/>		
16	Aero Detail	전투기의 첨단 임무 장비
22	무에서 유를	편전(片箭) -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
26	내 옆의 공군인	김기태 예비역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용비(KT-1)의 도약(중위 이우빈)
표 지(뒤) 수선화에 둘러싸인 공군인(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2년 3월 1일(통권 제525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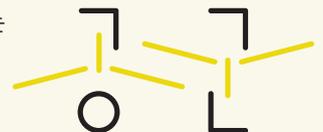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20049)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40	한 달, 한 권	친구가 지어준 저녁밥
42	명상을 말하다	시간이 인생이다
44	영화로운 나날	일상을 회복하는 밥의 힘
46	클래식 특특	똥똥한 사람들의 노래
48	트렌드가 보인다	구독의 전성시대

50	생각하는 그림	감사할 줄 아는 여유
52	공군인의 편지	전투조종사 (국방대학교 중령 이진기 자녀 이은지 양)
53	책읽는 공군	독자의 문학적 본능을 자극하는 천명관의 가작 (공군기상단 기지중대 상병 이재진)
54	수용의 미학	리디컬러스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초임 공군인, 그들의 봄



봄이다. 지난 겨울 몸을 움크린 채 한껏 양분을 머금은 새싹이 움튼다. 어디 새싹뿐인가. 따뜻한 공기에 등면을 마무리하고 기지개를 켜는 동물들은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사냥할 준비를 한다. 마스크로 가렸지만 가벼운 몸으로 봄 햇살을 수용하며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웃고 있다. 봄은 그렇게 희망을 물고 온다. 겨울의 지독했던 추위는 눈 녹듯 잊히고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는 마법 같은 시기, 봄. 여기 각자의 방식으로 봄을 나는 공군인들이 있다. 새싹 처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은 이제 막 공군이 된, 그야말로 초임 공군인들이다. 어딘가 미숙하지만 당당한 모습과 마치 벌써 공군을 이끌어 가기라도 할 것 같은 기백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있다면, 어느새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소위 정구문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위 정구문(이하 '정')_ 안녕하세요? 소위 정구문(학사 147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군 조종사를 꿈꾸며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신체 문제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하고 항공우주공학자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교수사관을 지원해 현재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AF. 기본군사훈련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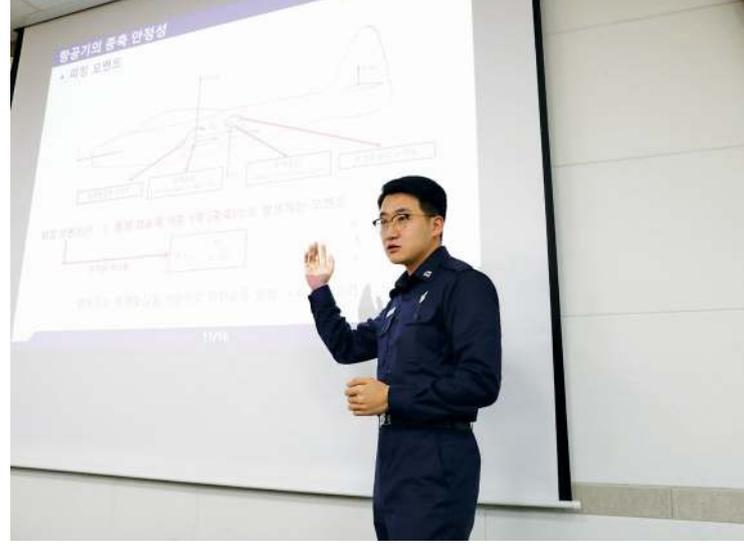
정_ 가족 같던 소대 동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훈련을 받던 날들이 기억에 남네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투 뺨걸음 훈련 때의 일이었습니다. 소대원 한 명이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 다른 소대원들이 그 동기를 북돋우며 밀어주었고, 결국 그 동기는 이 악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도 포기하지 않는 동기의 모습을 보며 소대원 모두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AF.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_ 공군사관학교 진학 포기 후 고등학교 시절 독일로 유학을 떠나 조종사가 되는 진로를 재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체적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조종사가 될 수 없다면 항공우주공학자가 되어 최고의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패기 넘치는 포부로 학부와 대학원 모두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AF. 교수사관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_ 제가 교수사관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생도로서 20대를 보내고 싶었던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생도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생도 교육 준비를 위해 모의 강의를 하는 모습

간절히 바랐지만 신체 문제로 좌절될 뻔했던 공군 입대가 가능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교수사관 전형에 지원했습니다만 준비 부족으로 불합격하고 말았고, 다시 학부 과목부터 공부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AF. 생도를 교육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정_ 우선 교수사관 전형으로 입대한 뒤 임관 이후 '신임 교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는 시범강의 및 이론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약 3~4주간 실제 생도를 교육할 교과목을 강의해야 하며, 이를 모두 통과해야만 교육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관 이후 오랜만에 전공 지식을 접해 초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선배 교수들의 지도와 도움으로 평가에 잘 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평가를 통과하고 생도를 가르칠 과목을 정리하며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운용실습실에서 강의를 연습하는 모습

AF. 교수가 될 것이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_ 주변에서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가족의 경우 저의 오랜 꿈이자 가고 싶어하던 공군, 더 나아가 사관학교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잘 됐다며 응원해주셨고, 친구들 대다수도 공군 출신이라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며 격려해줬습니다.

AF. 현재 공군은 우주공군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_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2016년부터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년별 수준에 맞는 항공우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공학과를 신설해 전문화된 우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최근 개설된 ‘인공위성 운용훈련’을 담당해 인공위성 운용 시뮬레이션 및 위성 데이터 처리와 같은 미래 우주공군의 정예장교에게 필요한 우주 지식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공군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을 훌륭하게 양성하겠다는 각오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첫 강의를 앞두고 긴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의 임무는 생도들을 잘 가르치는 것인 만큼 100%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120% 이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AF. 새로운 출발을 앞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정_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공군을 동경하고 조종사가 되기를 꿈꿨으나 여러 이유로 좌절을 겪은 저는 조금 다르지만 원하는 모습으로 결국 사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꿈은 이루어질 테니 좌절과 포기에 굴복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항공기 전시장 견학 당시(2005년) 초등학생 시절과 현재의 모습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학생구조사 하사 윤민규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사 윤민규(이하 '윤')_안녕하십니까? 하사 윤민규(부사후 241기)입니다. 저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소속 학생구조사로서 현재는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AF. 훈련을 모두 마치고 임관했을 때의 소감은 어땠나요?

윤_ 훈련에 앞서 친구들에게 상 하나는 꼭 타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처음 가보는 군대이기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수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나서서 시도해보고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제가 한 약속에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결국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게 됐고 참모총장상을 수상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관 당시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매우 기뻐고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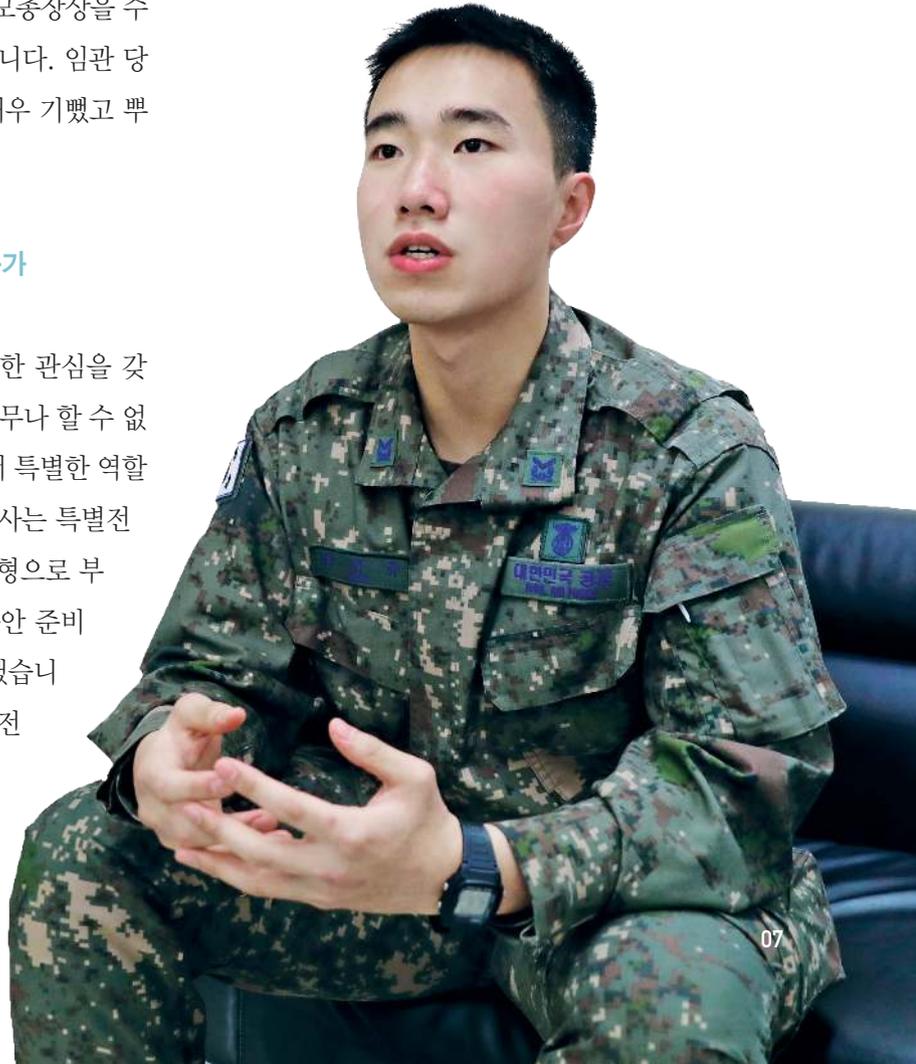
AF. 항공구조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윤_ 공군 입대 전부터 항공구조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항공구조사가 되어 공군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구조사는 특별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줄 알고 당시 일반전형으로 부사관후보생에 지원한 저는 복무 기간 동안 준비한 후 다시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훈련 기간 중 일반전형으로도 별도선발을 한다는 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겠다 싶어 고민 없이 지원했습니

다. 이후 면접과 체력검정, 그리고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습니다.

AF. 항공구조사가 될 것이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윤_ 제가 항공구조사에 지원할 당시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원 사실과 합격 사실을 알렸을 때, 다들 힘들 텐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걱정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며 뜻깊은 일에 힘쓰고 싶다는 제 확고함에 모두 열심히 하라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훈련을 함께한 제 동기들은 제가 항공구조사에 지원한 것부터 합격까지의 과정을 모두 지켜봐 줬는데, 꼭 붙을 거라며 늘 용기를 줬습니다.





승무원 초급과정 중 고공저압환경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AF. 현재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윤_ 처음 보는 장구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구조와 관련된 지식들을 하나둘 습득할 때마다 ‘내가 미래에는 이런 장구와 구조지식으로 조난자를 구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설렙니다. 물론 앞으로의 교육 훈련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제가 지금 느끼는 설렘을 가슴속에 새겨,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교육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AF. 항공구조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윤_ 항공구조사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난자의 목숨까지도 본인의 목숨이라 생각하면서 구조 임무에 투입되어 헌신적인 정신으로 조난자를 반드시 구조해내기 때문입니다.

AF. 앞으로의 목표와 다짐이 궁금합니다.

윤_ 우선 다치지 않고 무사히 항공구조사가 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입니다. 먼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특수탐색구조대대의 최우수 항공구조사로 선발되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항공구조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좌우명은 ‘힘들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입니다. 앞으로의 훈련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어 몇몇한 항공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승무원 초급과정 중 고공생리 이론 교육을 받는 모습

AF. 새로운 출발을 앞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윤_ 새로운 출발에 있어 도전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 매일 도전하게 될 텐데, 함께 자신을 갖고 도전하여 독자분들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제1전투비행단 소방구조중대 소방구조병 이병 박강민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병 박강민(이하 '박')_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제1 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소방구조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 박강민(병833기)입니다. 현재는 소방구조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AF. 고된 훈련을 모두 마치고 수료했을 때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박_ 기본군사훈련단과 특기학교에서의 훈련 및 교육 과정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드디어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기들과 헤어지게 되어 아쉽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군 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AF. 소방구조특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박_ 특기 선택을 앞두고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특기와 관련된 책을 읽던 중 소방구조특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소방구조 장병들이 강력한 화재를 진압하고 그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매력을 느낀 저는 이후 소방구조특기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특기학교에 가서도 기본적인 직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기 위해 열심히 교육에 임했습니다. 특기학교에서는 건물화재진압훈련과 인명구조훈련 등 임

무에 투입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지속했으며 소방 활동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로프 매듭법 등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건물화재 진압훈련입니다. 건물 내부의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동기들과 서로 의지해 화재를 진압해야 했습니다. 실전적인 환경에서의 훈련이라 더욱 집중해야 했고 동기들과의 우정도 더욱 끈끈해지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AF. 현재는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박_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몰랐던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있기에 교육이 많이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운동을 즐겨 하고 활동적인 편이라 체력을 요구하는 직무 특성상 제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 즐겁게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장구착용법 교육을 받는 모습



AF. 소방구조병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박_ 소방구조병은 마치 ‘의사’ 같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의사와 같이 소방구조병도 항공기, 건물, 인명 등 공군 전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F. 앞으로 군 생활 중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박_ 이제 막 군 생활이 시작된 만큼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있을 각종 훈련과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소방구조병으로서 전문성을 끌어올려 임무에 투입될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 실수하더라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휴식 시간에 마냥 쉬기보다는 자격증 준비, 체력 단련 등 자기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AF. 새로운 출발을 앞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박_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만 하더라도 이미 받은 성공이지 않을까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도전하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AF**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키는
바르고 강한 공군이 되겠습니다.

공군병영혁신센터

공군 신고전화 ☎ 7979



누군가 공군의 미래를 묻거든 이곳을 바라보게 해야겠다. 바로 2022년의 시작과 함께 신설된 공군 '미래기획센터'다. 공군은 미래발전을 위해 미래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무인체계 발전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과 노력을 결집해 하나의 센터로 구성했다. 미래기획팀·신기술융합팀·무인체계정책팀이 각각 현안을 담당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 공군의 혁신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센터의 힘찬 구호에서 정예 우주공군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이들의 당당함이 엿보인다. 이번 기사에는 초대 미래기획센터장과 각 팀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초대 미래기획센터장 대령 김민구

AF 자기소개와 센터장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대령 김민구(이하 '김'): 최근까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반의 공군 교육 훈련 발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초대 미래기획센터장으로서 미래 항공우주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군 미래기획 및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군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F 미래기획센터의 설립 목적이 궁금합니다.

김: 센터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군의 미래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항공 우주력을 건설함으로써 미래 공군의 혁신적이고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미래기획센터가 중심점이 되어 국민과 공군이 바라는 정예 우주공군의 모습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휘부의 지침과 공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정책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AF 지난해 신설된 공군본부 우주센터와 미래기획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김: 우주센터가 각종 무기체계 소요 창출, 우주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분야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라면, 미래기획센터는 공군의 미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스마트

비행단,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메타버스(Metaverse) 기반 교육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군력 건설을 주도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F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김: 현재 센터는 군, 정부 부처, 민간 산·학·연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제20전투비행단에 5G망과 자율주행차량, 실시간 차량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달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의 통합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항공교통관제 등 5개 분야에 VR/AR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는 군 무선통신장비용 통합 보안모듈 개발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F 그렇다면 미래기획센터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 신설된 조직으로서 새롭게 업무를 정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기존 공군 각 분야와 업무 영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겠죠. 공군본부 부·실단과 협력해 저희만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공군 미래기획위원회 운영 등 미래기획센터가 올해 계획한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AF 센터 내 다양한 특기의 인재들이 등용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겠조?

김: 조종, 인사교육, 군수, 정보통신 등 다양한 특기와 분야별 우수한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센터인 만큼, 이들이 공군의 미래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저 또한 센터장으로서 유연하고 열려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령(진) 강태우(이하 ‘강’): 저는 과거 공군본부 정보화 기획참모부에서 유·무선 기반체계 발전정책과 조직발전 업무를 수행했고 작년부턴 현재 신기술융합팀의 전신인 신기술정책과 과장을 맡아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F 미래기획센터 내 신기술융합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강: 신기술융합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군 전 임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정책 개발과 혁신 소요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융합팀의 주된 역할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공군력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인공지능(AI)을 주축으로 한 기술융합을 통해 스마트 공군부대 건설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AF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신기술 융합팀은 미래 공군력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강: 현재 민·관·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군 R&D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과 전략 소요 창출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과」를 구성해 참모차장 주관으로 매월 실무위원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분과」는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을 분과장으로, 공군본부 실무과장 및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현안과 추진과제를 토의하고 국가정책과 국방정책을 공유하는 등 핵심기술 정보공유의 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AF 스마트 국방혁신의 과제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을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궁금합니다.

강: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은 공군 12개 비행단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작전부대의 표준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신기술 체계를 통해 작전수행의 완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그 범위를 확장해 공군 전 부대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부대별 중·장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공군 지능형 스마트 부대의 완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AF 그렇다면 앞으로 공군 전 부대에 적용될 신기술은 무엇입니까?

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수소, 우주·항공 등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10가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공군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5G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 부대에 사이버보안과 양자통신 기술을 더하여 발전해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 착수한 사이버 공격 차단체계는 사이버보안 기술 분야의 발전을 향해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5G 무선 양자암호 통신을 활용한 군 차량 상태 관제체계를 구축해 첨단 융합기술을 통한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기술융합팀장 대령(진) 강태우



무인체계정책팀장 대령(진) 장성규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령(진) 장성규(이하 '장'): 저는 주로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백서』 등을 작성하였고, 최근에는 공군본부에서 「에어포스 쿼텀 5.0」, 「공군 미래전 수행개념」 등 공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AF 미래기획센터 내 무인체계정책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장: 무인체계정책팀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로봇, 자율주행 체계를 융합하여 하나의 전투체계를 구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체계가 담당해야 할 임무의 영역과 수준을 구체화하고, 무인체계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구성원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임무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F 무인체계가 공군 작전수행능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장: 병력 충원만으로는 넓어지고 있는 공군의 임무와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체계를 이용한 임무의 종류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특히, 우주영역과 사이버영역에서는 지능화/자동화된

무인체계에 의한 임무수행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군이 무인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확충한다면 공군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F 무인체계 확장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장: 무인체계가 인간의 영역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수집되는 많은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류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은 군뿐 아니라 산·학·연의 능력과 노력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임무수행과 무인체계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F 무인 전투체계가 전력화된다면 군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도 꾀할 수 있을까요?

장: 무인체계 도입 초기에는 무인체계가 인간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유·무인 복합형태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용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기술성숙도와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어렵고, 위험한 임무 영역에서부터 인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F 차세대 스마트 비행단 구축을 위해 무인체계정책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장: 스마트 비행단 사업 추진을 통해 Data, 5G,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체계가 공군부대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무인체계정책팀은 이 체계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유·무인체계를 연결하는 전투체계 운용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유인체계 대비 무인체계의 효과 분석, 최적의 유·무인 복합체계 조합구성, 필요한 핵심기술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F**



전투기의 첨단 임무 장비

AESA¹⁾ 레이더

레이더가 표적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파 빔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방향 변화 방식에 따라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구분된다.

기계식 레이더는 접시 모양 또는 평판 모양의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표적을 탐지하는 방식의 레이더다. 반면 전자주사식 레이더는 안테나에 장착된 소자가 빔의 방향을 전자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자주사식이라고 한다.

전자주사식 레이더는 빔의 방향을 전자적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자주사식 레이더는 항공기 기골이나 함정 선체에 붙박이식으로 고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주사식 레이더에도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다. 수동 전자주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 같이 전파를 만드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 하나의 고출력 송신기에서 만들어진 전파가 안테나에 위치한 각각의 위상²⁾ 변조기를 통해 위상이 바뀌어 빔의 방향이 조절되는 것이다.

수동 전자주사 레이더와 기계식 레이더가 하나의 고출력 송신기와 수신기를 갖고 있다면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는 다수의 송수신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빔의 송신과 수신을 담당하는 작은 송수신 모듈이 안테나에 대량으로 배열되어 있다.



F-4J 기계식 레이더의 접시 모양 안테나



Grifo 기계식 레이더의 평판 모양 안테나

1)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 전자주사 배열

2) 위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어떤 시각 또는 어떤 장소에서의 변화의 국면을 가리키는 물리학 용어

전자주사식 레이더 중에서 전투기 탑재 레이더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능동 방식, 즉 AESA 레이더이다. 수동 전자주사 레이더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송신기를 갖고 있어 송신기가 고장 나면 전체 기능이 멈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결함품의 수만큼 효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안테나를 구동시키는 기계 부품이 전자 부품으로 대체되어 전반적인 체계 신뢰도가 매우 높다.

신뢰도보다 더욱 중요한 AESA 레이더의 장점은 신속한 빔 조향 능력이다. 기계식 레이더는 모터 등을 통해 안테나를 움직이므로 한 번 탐지된 표적 정보를 갱신하는데 수초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므로 1/1000초 정도면 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빔 방향 전환은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필요한 곳에 빔을 빠르게 조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조종사의 전장 상황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공중전에 있어서 상황인식의 우위는 승리의 절대 요건이다.

또한, AESA 레이더는 공중 표적은 물론, 지상 표적에 대해서도 빔을 신속하게 번갈아 가면서 조향할 수 있다. 즉, AESA 레이더 한 대로 공중과 지상 표적을 거의 동시에 탐색 및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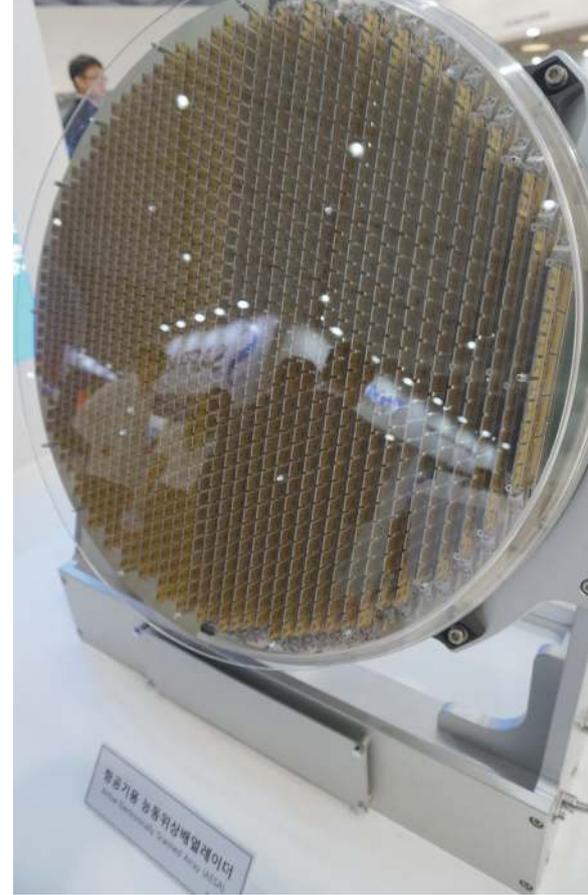
안테나는 전파를 잘 반사하는 물체이다. 따라서 스텔스기의 레이더 안테나가 계속 움직이면서 전파를 반사하면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안테나가 일정 방향으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AESA 레이더는 스텔스기에 꼭 필요한 레이더 방식이기도 하다.

AESA 레이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가의 송수신 모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AESA 레이더는 최신 전투기의 주요 레이더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IRST³⁾

앞서 살펴보았듯이 레이더는 표적을 포착하기 위한 중요한 센서로 사용된다. 따라서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센서가 적외선 센서이다.

적외선 센서는 표적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장비이다. 적외선은 빛이 없는 야간에도 표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간용 전투 장비에 폭넓게 활용돼왔다. 헬멧에 장착되어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는 야시경은 이미 지상전의 필수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전투기의 야간 비행을 지원해주는 전방적외선감시장비(FLIR), 적외선탐색추적장비도 적외선 센서의 일종이다. 이 중에서 스텔스기 탐지에 크게 기여하는 센서가 적외선탐색추적장비, 즉 IRST다.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배열된 AESA 레이더 안테나

3) IRST(Infra-Red Search & Track): 적외선탐색추적장비



볼 모양으로 F-101 전투기에 탑재된 초창기 IRST

IRST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전자신호의 방출 없이 원거리에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는 장비이다. 전방적외선감시장비가 주로 지상의 표적 식별이나 항법 용도로 활용된다면 IRST는 주로 공중 표적 탐지에 활용된다.

IRST가 처음 항공기에 탑재된 것은 1960년대 미 공군 전투기 F-106A와 미 해군 F-4B부터였다. 당시 IRST는 성능이 기대만큼 우수하지 않았고, 오경보율도 높아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탐지확률과 오경보율이 개선되어 1990년대부터는 미 해군의 F-14D 전투기에 탑재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공군 F-15K의 AAS-42 IRST도 바로 F-14D에 탑재되었던 것과 동형 IRST이다.

IRST는 표적의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지만, 표적까지의 거리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IRST와 레이저거리측정장치를 전투기에 함께 운용하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다.

IRST는 레이더와 같이 에너지를 스스로 방사하고 탐지하는 능동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외부 에너지를 감지하는 수동식 센서이다. 따라서 은밀하게 표적을 탐지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레이더와 비교하여 IRST는 적외선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전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텔스 탐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텔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기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통제하는 기법은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전투기가 최대 추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엔진 배기가스의 적외선과 마하 2 이상의 고속으로 비행할 때 기체의 공기역학적 가열로 발산되는 적외선은 감추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IRST도 단점이 있다. 레이더는 전천후 탐지가 가능하지만, IRST는 다른 적외선 센서와 마찬가지로 기상 상태에 따라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IRST는 앞서 서술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첨단 전투기의 필수 센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MIG-29 전투기의 IRST



러시아 첨단 스텔스 전투기 Su-57 기수에 장착된 IRST

EO TGP⁴⁾

1972년 5월 13일, 미국의 F-4 전투기 11대가 정밀유도 폭탄 20발을 탑재하고 한차례의 폭격으로 북베트남 탄 호아 철교를 파괴한 사건이 있었다. 1965년부터 4년 동안 연 600대의 폭격기가 일반 폭탄으로 폭격하고도 파괴하지 못한 철교를 단 한 차례의 정밀폭격으로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정밀유도폭탄은 다수의 폭격기가 용단 폭격으로 하나의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에서 정밀유도 폭탄 한 발당 표적 한 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폭격 양상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정밀유도폭탄이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히 포착하고, 폭탄을 표적까지 유도해주는 유도 장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이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항공기 초기 설계부터 요구도에 포함되어 항공기에 내장되는 경우도 있고, 항공기 외부에 포드(pod) 형태로 부착되기도 한다. 외부에 장착되는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포드로는 페이브 스파이크, 페이브 나이프, 페이브 텍 등이 과거에 운용되었고, 랜턴(LANTIRN: 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for Night) 포드가 널리 알려져 있다.

F-16이나 F-15에 탑재되어 유명해진 랜턴은 AAQ-13 항법 포드와 AAQ-14 표적추적 포드로 구성되며, 동체 아래 좌측에 항법, 우측에 표적추적 포드를 탑재한다. 표적추적 포드에는 야간에 표적을 포착하기 위한 전방적외선감시장치와 레이저 유도폭탄 유도용 레이저 지시기, 항법 포드에는 초저공 침투를 위한 지형추적레이더, 전방적외선감시장치가 각각 내장되어 있다.



레이저 유도폭탄 유도에 사용된 구형 페이브 스파이크 포드



AAQ-14 표적추적 포드와 AAQ-13 항법 포드

4) EO TGP(Electro-Optical Targeting Pod):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1980년대에 랜턴 포드를 개발한 미국 록히드 마틴사(社)는 후속 모델로 1990년대에 스나이퍼 포드를 개발했다. 스나이퍼 포드는 무게가 175kg으로 무게 257kg의 랜턴보다 상당히 경량화되었다. 또한, 고감도의 3세대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표적탐지 및 유도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가령 기존의 랜턴은 고도 7.6km까지가 운용 한계였지만, 스나이퍼 포드는 12.2km 고도에서도 작전이 가능하여 유연한 공격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포드의 외양은 전방에 둥근 센서가 부착된 형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스나이퍼 포드는 독특하게도 앞부분이 각진 썩기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스나이퍼 포드의 각진 부분은 흠집이나 균열의 우려가 적고,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잘 투과시키는 합성 사파이어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B-1 폭격기에 탑재된 썩기 형상의 스나이퍼 포드

스나이퍼 포드는 미 공군에서 F-16, F-15, A-10은 물론 B-1 폭격기에도 탑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35 스텔스 전투기 기수 아래에도 내장되기 때문에 전투기의 대표적인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포드로 활용되고 있다. 미 공군은 스나이퍼 포드를 사용하지만 미 해군은 F/A-18 전투기에 스나이퍼 포드와 유사한 ATFLIR⁵⁾ 포드를 탑재한다. 프랑스는 다모클레스, 이스라엘은 라이트닝 포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정밀유도무장의 확산에 따라 활용도가 점점 높아져 앞으로는 전투기의 필수적인 임무 장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F**

5) ATFLIR(Advanced Targeting Forward-Looking Infra-Red): 첨단 표적추적 전방감시적외선장비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을 저술하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공피셜

공피셜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에어본

AIRBORNE*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하사하자

하사하자



장 병장의 임기제부사관 도전 콘텐츠

공다방



공군의 다방면을 보여드립니다

항공기 VLOG



항공기 시점에서 보는 비행단의 하루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
/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
/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
/rokaf_offici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무에서 유를

편전(片箭) -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



글쓴이 소개_『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 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날아온다.
마치 저격병이 쏜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이런 이야기는 근현대전이나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병기가 있었고, 조선군들은 그런 무예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바로 조선의 비밀병기 ‘편전(片箭)’이다. 보통 그 크기는 ‘애기살’이나 ‘동자전(童子箭)’이라는 별칭을 붙일 정도로 작았다.

현재 활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격의 화살은 팔의 길이 및 힘의 세기와 연동하여 5.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5.0이나 9.0은 화살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인 7.5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2자 7치 5푼에서 2자를 생략한 표기 형태다. 7.5규격의 화살을 cm(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2자(60.3cm)+7치(21.21cm)+5푼(1.5cm), 즉 약 83cm 정도의 길이이다. 5.0(75.75cm)에서 9.0(87.87cm) 정도가 보편적인 화살 길이이다.

편전의 길이는 1척 2촌(약 24~36cm) 정도로 매우 짧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cm 짜리 자보다도 짧은 형태이니 아이들 장난감으로나 쓰는 ‘애기살’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작다고 우습게 알았다가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편전의 특징이 비행속도 증가와 관통력에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일반 화살보다 더 빠르고 철갑까지도 쉽게 뚫어버리는 무서운 무예였다.

이처럼 짧은 화살을 일반적인 활의 시위에 걸어 쏘려면 활을 가득 당길 시에 화살 앞고정점이 없어 정상적으로 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편전처럼 짧은 화살을 쏘려고 한다면, 활 크기 또한 해당 화살의 규격에 맞게 작아야만 발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활의 크기가 작아지면 아이들의 장난감 수준으로 활의 장력이 낮아지기에 전투 시 활용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적을 향해 쏘는데, 몇 발자국도 못 날아가고 앞에서 곤두박질치면 누가 군사무기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편전의 짧은 화살 길이를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일종의 보조도구인 '통아(桶兒)'를 사용했다. 통아는 반쪽으로 쪼갠 긴 대롱이며, 바로 이런 통아에 넣어 발사하는 것이 조선 활쏘기의 특수무예인 편전의 특징이었다. 편전을 쏘는 방식을 복원해보면 이렇다. 먼저 통아 삼입구 쪽에 구멍을 뚫어 끈을 매달아 손목에 건 후, 편전을 활사위에 걸어 이 상태에서 통아에 편전을 밀어 넣는다. 이렇게 하면 활을 가득 당겨도 통아가 보조받침 역할을 하기에 편전을 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후 활을 쏘면 통아 속을 따라 편전은 자연스럽게 적을 향해 비행을 시작하고, 통아는 자신의 몸 뒤쪽을 향해 움직이며 손목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장전을 한다.

편전의 빠른 비행속도는 비행거리와 비례해 일반적인 화살에 비해 유효사거리가 두 배 이상이다. 이러한 편전의 비행속도로 인해 관통력이 우수하다고 평한 것이다. 스피드건을 이용하여 비행속도를 측정할 경우, 일반 장전(長箭)은 약 60-65m/s 정도라면 편전은 약 75-80m/s로 순간 속도가 장전에 비해 빠르다.

편전이 일반 화살에 비해 빠르게 날아가고, 거기에 길이는 짧기에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된 것이다. 일반적인 크기의 화살은 측면에서 보면, 발사 순간부터 화살의 비행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100m가 넘어갈 경우에는 정면에서도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보일 정도로 화살의 속도가 급속히 줄어든다. 그래서 조선시대 활터에서는 한량들이 화살을 쏘면 과녁 근처에 '계자리'라는 임시 회피 구역에 숨어 있는 사람이 나와 놀이처럼 화살을 쳐 내거나, 과녁 밖으로 나가는 화살을 과녁에 맞게 하는 직업인이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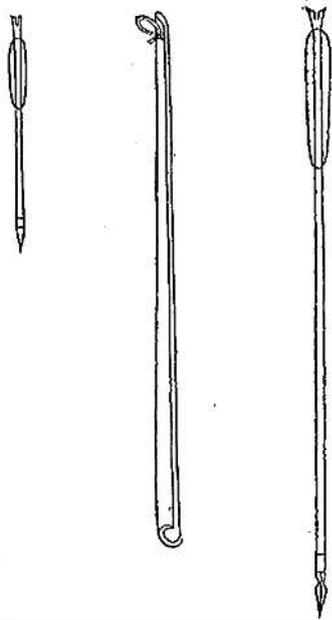
통아에 끼워진 편전의 모습

조선군들이 철갑으로 무장한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일반적인 장전을 쏘면 그대로 튕겨 나와, 날아온 화살을 주워서 그대로 도로 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빠른 편전이 날아올 경우는 그 순간부터 별별 떨기 시작해 도망가기 일쑤였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편전을 쏘는 조선군은 여진족에게 그야말로 '죽음의 신'이었다.



필자가 통아에 편전을 넣어 활을 가득 당기고 있는 모습

箭片 兒筒 箭長



조선후기 병서 『웅원필비(戎垣必備)』에 실린 편전, 통아, 장전의 모습

심지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의 경우는 조선군이 쏜 편전에 하도 많이 목숨을 잃어 ‘편전을 쏘는 조선군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극악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수군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정확하게 편전을 발사해 왜구들의 방패를 뚫어 버리거나, 방패와 방패 사이의 빈 공간을 교묘하게 쏘 정도로 철저하게 수련했다.

그래서 무과시험에서도 편전은 일반 활쏘기와는 다른 평가 규정이 있었다. 목전(木箭)이나 철전(鐵箭)은 표적을 맞히지 않더라도 더 먼 거리로 화살을 보내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편전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표적을 맞혀야만 점수를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바로 ‘일발필중(一發必中)’, 한 발을 쏘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혀야만 하는 것이 편전이었다.

이처럼 주변국에게 ‘조선의 애기살’, 곧 편전은 공포의 무기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무예기법으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18세기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를 보면, 임진왜란을 거치며 중국군은 장창(長槍), 조선군은 편전, 일본군은 조총(鳥銃)이 천하에 위세를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편전은 통아라는 덧살에 끼워서 화살을 쏘는 방식이기에 가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통아에 편전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거나, 통아의 지름 규격과 맞지 않을 경우, 혹은 통아가 관리 불량으로 뒤틀린 경우에는 어김없이 활을 잡은 손등을 관통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임진왜란 시 경상우도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정경운(鄭慶雲)이 남긴 일기체의 책인 『고대일록(孤臺日錄)』에도 편전 수련 중 자신의 손을 관통한 부상 상황을 자세하게 남기기도 했다. 또한, 편전을 오랜 세월 수련한 조선군일지라도, 전투라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열 중 여덟아홉 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조선군들은 씬 없는 수련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갔다.

이처럼 편전기술이 조선군사의 특수한 무예로 인식되자, 청나라나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기법을 훔치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 중앙 정부는 편전 쏘는 기법을 군사기밀사항으로 철저하게 관리



다양한 전통 활쏘기 보조도구 (왼쪽부터) 족돌이(화살의 축을 화살에 박거나 빼는 역할을 하는 전통무기도구), 각지(활을 쏘 때 엄지손가락에 거는 도구), 슝(팔뚝 소매를 고정하는 완대)

했다. 아무리 활을 잘 쏘는 군사들도 통아를 사용하는 기법을 알지 못하면 편전은 발사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북방의 국경 인근이나 남방의 부산포 등 삼포를 비롯한 왜인 출몰지역에서는 통아를 이용한 편전 쏘는 훈련 자체를 군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래도 편전 쏘는 기법을 몰래 엿보거나, 친분이 있는 조선 군관들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렇게 유출된 조선의 편전기법이 일본에 전파되어 '쿠다야(管矢)'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지금도 일본 사료에 남아 있는 조선 편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조선 후기에는 해마다 청나라로 사신단을 파견했는데, 그때 조선 외교관들의 호위를 담당하는 무예군관에게 편전 쏘는 방법을 공개하라는 강압이 들어오기까지 했다. 심지어 청나라 황제가 조선군 호위군관들에게 직접 명령하듯 현장에서 편전을 쏘 것을 주문했던 기록이 존재하기도 하

다. 편전과 통아는 이미 청나라가 진상품 명목으로 가져갔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찌 쏘는지는 황제의 최측근 군사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여러 전투를 통해 조선군 편전의 위력을 청나라 군사들도 체감하고 있었기에 청 황제조차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처음에는 여러 핑계를 들어 피하던 조선 군관들도 황제가 얼굴을 보며 명령을 내리자 어쩔 수 없이 편전을 쏘 수밖에 없었다. 이후 조선의 편전기술이 청나라 군사들에게 유출되었다며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일기장에 조심스레 적어 놓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아군의 생명을 지키는 군사기술은 철통같은 방비를 통해 지켜나가야 한다. 편전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고심했던 조선 군관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군사보안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편전을 보며, 용골찬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을 그려본다. AF



제35화 김기태 예비역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 군사경찰대대 군견소대에서 군견관리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지 약 한 달 정도 된 김기태(병 813기)입니다. 월간 『공군』을 볼 때면 <내 옆의 공군인> 코너에는 사회에서 꽤 성공한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지 여기에 제가 나와도 되나 싶은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저와 일상을 함께하는 셰퍼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얼마 전 은퇴한 군견 '레다'입니다. 군 복무 시절, 레다는 제 담당 군견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가와 면회, 외출도 제한된 군 생활을 견디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잘 따라주는 레다를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레다는 저를 조건 없이 좋아해 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거든요. 어떻게 부대 밖에서 레다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의 첫 만남부터 소중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군견관리병 이라는 운명

공군에 입대할 당시, 저는 '항공통제'나 '운항관제' 특기를 받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군용기를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 국가들의 군용기 기종과 장단점, 보유 현황 등을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취미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항공기와 함께 군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공군에 입대했지만, 결국 '군사경찰' 특기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특기를 배정받은 후에는 군견소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군견소대가 군사경찰대대 소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발 인원수가 적어 '이마저도 힘들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너무나 좋아하는 내가 아니면 누가 군견소대에 가겠느냐는 생각을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5비로 배치받은 후 소대 분류를 위해 주임원사님과 상담을 할 때도 군견소대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제 의지를 한껏 보여드렸습니다. 제 뜻을 알아봐 주신 덕인지, 다행히 군견소대를 갈 수 있었고 군견관리병이라는 보직으로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특기를 받지 못해 항공기와는 멀리 떨어져 생활할 것 같아 실망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군견과 함께 매일 밤 주기장 순찰을 나가면서 항공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컷 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 해보면 군사경찰특기로 군견소대에서 멋진 군견들과 군 생활을 함께한 것이 참 소중한 감사했습니다. 레다와 지금까지 함께할 줄 알았더라면 특기 분류 당시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요.(웃음)



레다의 하네스에는 공군에서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다.

레다와의 첫 만남

군견소대에서 일병으로 진급하고 두 달이 지났을 즈음, 제14회 군견경연대회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능숙한 선임병들이 위주가 되어 참가하는 대회라 당시 계급이 낮았던 저는 큰 기대하지 않고 단지 ‘인생에 한 번뿐인 군 생활인데 저런 대회도 나가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군견훈련을 담당하던 한 선임이 야간 순찰근무를 마치고 온 저를 보며 경연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연대회는 군견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집중력도 요구되는 대회이기에 선임이 저에게 의사를 물어봐 준 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때부터 선임과 함께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5비 군견소대에는 에이스라고 불리는 셰퍼드 두 마리가 있었는데 바로 ‘고니(수컷)’와 제계 대회 참가를 권유했던 선임의 담당 군견 ‘레다(암컷)’였습니다.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고니에 비해 레다는 직전 대회에서 아쉽게 수상을 놓쳐 심기일전한 뒤 다시 대회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임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레다와 다시 한 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무리였고 제가 레다를 이어받아 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레다의 담당이 되고 나서는 레다와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레다는 활발했지만 친해지기 전까지 마음을 쉽사리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내다가도 멀리서 원래 담당이었던 선임이 보이면 꼬리를 흔들며 도망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임은 레다에게 ‘안 돼!’ 하며 손으로 밀어내기까지 하면서 레다가 저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후임에게 담당 군견을 내려주며 억지로 밀어내야 했던 선임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지 지금이야 이해가 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이 간식을 주면서 쓰다듬어주기를 수차례, 제 진심이 통한 건지 레다도 제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레다는 저를 완벽하게 따라주었고 드디어 대회를 위한 훈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군견경연 대회를 준비하며

그렇게 두 달간 레다와 짝을 이뤄 군견경연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경연대회 종목은 ‘명령복종’, ‘공격선동’, ‘체력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 영예의 ‘탑독(Top Dog)’ 수상을 목표로 훈련했습니다. 레다는 이미 여러 차례 대회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보다 앞서 행동할 정도로 잘 따라줬습니다. 늦여름의 맹벌 아래 매일같이 레다와 ‘앉아’, ‘엎드려’ 등 명령복종 훈련을 하고, 후임들이 저를 도와 방어소매와 전신 방어복을 착용하고 공격선동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공격선동 훈련을 할 때면 레다는 웬만한 수컷들보다도 공격성이 높아서 방어소매를 곧잘 물었습니다. 5비에는 레다보다 공격능력이 뛰어난

군견들도 많지만 레다는 공격명령 이후 중지명령을 내리면 통제가 잘 되어 기특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상 대회가 다가오니 탐독은 고사하고 무사히 대회를 마치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다를 믿지만 다른 부대 군견들의 수준을 모르니 불안했거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부대끼리 대회를 진행해서 저와 레다는 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앞두고 있었고 대회 중 생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 저녁과 대회 당일 아침까지 레다를 굶겨 데려갔습니다. 한 끼만 더 굶길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될 줄은 이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제 레다 나오세요!’

호명이 되자 레다를 케이지에서 꺼내던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떨렸지만 5비 군견소대의 명예를 걸고 참가한 만큼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평가관님들과 3훈비 군견소대원들이 대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 훈련을 진행했던 적이 없어서 레다가 저에게 집중을 잘해줄지 걱정도 됐습니다. 레다가 처음 보는 훈련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레다를 제 왼쪽 무릎 옆에 대기시켰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레다에게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제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명령복종 종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거리에서 구령과 수신호로 ‘앉아’, ‘엎드려’ 등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다는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제 명령에 따라주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수없이 했던 훈련보다도 더 잘해줘서 저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희를 지켜보던 무리에서는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명령복종 종목 막바지에 레다에게 ‘엎드려’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까지 잘 해오던 레다가 갑자기 엎드리지 않고 앞으로 슬금슬금 걸어가더니 엉거주춤한 자세로 큰일을 보았습니다. ‘아...’ 감탄사는 탄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회 도중 군견의 생리현상은 실격과 다름없는 점수를 받기에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레다 대변을 치우기 위해 달려오던 3훈비 군견소대 병사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게 명령복종 부문이 종료되고, 대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저에게 군견소대장님께서 끝까지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공격선동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레다가 앞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만회하려 했는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선동 종목을 마쳤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중 레다가 공격선동 종목에서 1위를 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레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줬고, 저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훈련하며 레다가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저는 알고 있기에 제 마음속 탐독은 당연히 레다입니다.



김 예비역을 바라보는 레다의 눈빛

레다를 입양하다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확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레다를 입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레다가 지낼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입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이 확장된다면 레다가 지내기에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확장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진지하게 입양을 고민해왔습니다.



김 예비역은 현재 부모님을 도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후 면회를 오신 부모님께 레다 입양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도 은퇴군견의 노후를 보살펴주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의견을 존중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저는 이대로 레다와 헤어진다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아 군견 무상양도¹⁾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견이 된 군견들은 미활용 군견으로 구분되어 훈련이나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여생을 견사에서 살아갑니다. 2011년에 태어난 레다는 당시 10살이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레다의 은퇴 시기와 제 전역 시기, 그리고 동물병원 확장이라는 3박자가 고루 갖춰져 레다 입양에 대한 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소대에 적극적으로 입양 의사를 밝혔고 소대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의 도움으로 약 한 달 뒤, 최종 분양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레다의 하네스와 리드

줄, 입마개 등 애견용품을 사고 사료는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야간에 잠에서 깨 근무를 나가던 레다가 이제는 밤에 편히 자면서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앞으로 군견 양도가 활성화되어 은퇴군견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레다가 아직 소형견을 본 적이 없어서 입양 이후 혹시나 동물병원에서 함께 지내는 소형견들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초반에는 항상 가벼운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소형견들이 짖으면 오히려 레다가 먼저 자리를 피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레다와 덩치가 비슷한 대형견들이 동물병원에 올 때면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꼬리를 흔들며 같이 놀곤 하는데, 그런 레다의 모습을 보면 레다도 소대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지금은 동물병원에 있는 여러 동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레다

1) 2015년도부터 전군 최초로 공군은 훈련과 작전에서 배제된 은퇴군견을 민간에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서류심사·현장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분양이 최종 결정되며, 공군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꿈이 생기다

주인에게 애교도 부리고 리드줄 없이 신나게 공놀이도 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군견으로 살아가는 개들을 보며 처음으로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가 수의사이지만 어릴 적부터 봐오면서도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고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군견관리병으로 생활하며 군견들이 다치거나 죽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군견들이 제때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거나 왜 아픈 건지 수의관님께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을 때, 제가 수의사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편입이나 수능을 통해 수의대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통 군견, 그중에서도 셰퍼드를 떠올리면 행동에 거침이 없고 대범하며 활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다는 제가 봐온 여느 소형견들처럼 얌전하고 차분합니다. 신병들이 소대 견학을 올 때면 레다가 신병들을 맞이해줄 정도로 5비 군견소대에서 가장 똑똑한 군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레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레다는 주인만 바라보는 ‘주인바라기’이기 때문입니다. 레다는 다른 사람이 리드줄을 잡고 있어도 멀리 있는 저를 보면 버티고 서서 짖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폴짝 뛰면서 몸을 비빉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레다 리드줄을 잡고 제가 바로 옆에서 걷는데도 행여나 제가 멀어질까 저에게 몸을 비비며 어리광을 부립니다. 그런 레다를 보면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전역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레다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도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다려!’ 명령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레다가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기를 천천히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언젠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레다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다는 제게 전부나 다름없으니까요. **AF**



김 예비역을 기다리는 레다의 능글픈 모습





제3훈련비행단 36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블랙 이글스 정예화 훈련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올 한 해 축하비행에 대비해 정예화 훈련을 실시했다.





'22-2차 공본 온택트 하늘사랑 아카데미

박인호 참모총장은 2월 16일(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를 비대면으로 초청해 ‘달을 향해 쏘라(Shoot for the Moon)’라는 주제로 '22-2차 공군본부 온택트 하늘사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총장은 고산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표님이 겪은 많은 고난과 역경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우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공군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1월 월간참모회의 및 근속 30주년 기념 휘장 수여식



박인호 참모총장은 1월 24일(월), 공군본부에서 1월 월간참모회의를 주관하여 미래기 획센터 신설 등 주요 업무를 점검했다. 또한, 올해 2월 1일부로 근속 30주년을 맞이한 대상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공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 을 전하며 근속 30주년 기념 휘장을 수여했다.

2022년 공군 정책 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박인호 참모총장은 2월 10일(목),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윤 은기 위원장을 비롯한 각 자문위원이 화상으로 참석한 이번 전체회의에서 총장은 올 한 해 공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분야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총장은 “공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주로 도약 하는 공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74기 예비생도 기본군사훈련

공군사관학교는 74기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예비생도들은 군사교육, 생활교육, 정신교육 등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기초 전투능력을 배양했다.



제1전투비행단

설맞이 병사 격려행사

제1전투비행단은 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설을 맞이해 병사 대상 격려행사를 실시했다. 병사들은 풋살, 농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부터 e-스포츠, 민속놀이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



제3훈련비행단

야간 항공기 소방구조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2월 7일(월), 야간 항공기 소방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항공기 화재 발생으로 인한 비상 착륙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임무 요원들은 상황대응절차를 점검하고 숙달했다.



제11전투비행단

언택트 한마음 걷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2월 한 달간 ‘언택트 한마음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 및 체력단련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의 활력을 찾기 위해 실시됐으며, 걸음 수 측정 앱을 통해 참가 팀별 누적 걸음 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설 연휴 사고 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 운동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월 28일(금), 단주임원사와 으뜸병사들을 주축으로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해 안전한 부대를 만들자는 취지의 사고 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 운동을 펼쳤다.



제38전투비행전대

대테러 초동조치 훈련

제38전투비행전대는 2월 3일(목),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테러 초동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거동수상자의 탄약고 무단 침입 상황을 가정해, 출동부터 거동수상자 제압 및 이송까지 내실 있게 진행됐다.

한 달, 한 권



친구가 지어준 저녁밥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얼굴도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다. 50년이 훌쩍 지난 세월이니 기억이 지워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이 무척 짧았던 까닭이겠다. 그게 무슨 친구냐고 하겠지만, 잊힐만하면 그 아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울 때도 그랬고, 어느 봄날 허파 속에서 아카시아 향내가 피어날 때도 그랬고, 길을 걷다가 눈길에 마주친 낯선 행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도 그랬다. 그만하면 나에게서는 더 없는 친구였다.

거의 모든 아이가 회충약을 한 주먹씩 받아먹던 시절이었다. 많은 아이가 코를 흘리고 있었고 옷소매는 콧물로 반질반질하던 초등학생 시절이었다. 그 친구가 나와 짝꿍이었는지 아니면 함께 했던 청소 당번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집에 가서 놀자며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해가 저물 때까지 여기저기 알아서 놀다가 누군가 먼저 “밥 먹어라”라는 소리에 하나둘씩 흩어지면 그만이었다. 친구는 나를 데리고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중턱으로 올라갔다. 오르는 내내 인분 냄새와 함께 노랗고 하얀 무꽃과 배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작은 숲도 있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지천이었다. 우리는 대나무 끝을 갈라서 틈을 내놓은 장대로 아카시아꽃을 비틀어 땀다. 그 꽃을 맛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 향기만큼이나 달콤했다는 것을. 그러나 꽃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

산속에서 허기지게 놀다가 친구 집에 갔다. 그런데 여느 집과 달랐다. 열기설기 나무판자를 엮은 담과 양철지붕이 집의 형체를 견뎌내고 있었다. 녹슨 처마 사이로 드문 드문 하늘이 보였고 부뚜막과 이어진 작은방 하나에 몇 식구가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른은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떡볶이나 튀밥 같은 것을 내어 주었을 텐데, 이 친구는 자신이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선반에 걸려있는 양은냄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땀을 담아왔다. 바닥이 까맣게 누른 냄

비 안에는 하얀 밀가루가 담겨있었다. 아이는 능숙하게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는 숟가락으로 밀가루를 얼마간 휘적거렸다. 처음 보는 요리다. 거기에다 무엇을 좀 넣겠거니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이는 나에게 냄비 채 들이밀더니 다됐다고 하였다. 구운 밀가루, 그게 다였다. 아이는 숟가락을 건네며 먹어보란다. 맛은 그럭저럭이었으나 밀가루는 입속에서 따뜻했다. 아이와 나는 입술이 하얘지도록 퍼먹고는 드문드문 하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후로 구운 밀가루를 먹어 본 적은 없다.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얼핏 그게 그 아이의 저녁밥이란 생각이 들었다. 공연히 숟가락을 자주 담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친구와의 기억은 이것뿐이었다. 그 뒤로 그 아이를 보질 못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박준 시인의 <계절 산문>을 읽으면서 문득 그 친구의 실존이 궁금해졌다.

“그해 가을 같지만 그해 가을은 아닌 곳에서 저는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그해 가을은 아니지만 그해 가을 같은 곳에서 강건하게 계셔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상림에 다시 가보고도 싶습니다.”(41p)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세상 한구석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한들 못 알아볼 테지만, 그도 나처럼, 가슴에 푸른 등불을 켜고 살았던 어느 유년의 봄날, 우리가 함께했던 저녁 한 끼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책 한 권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허기를 채웠다. 마음이 뭉글해지는 선물 같은 구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렇게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머릿속에서 동사 하나가 계속 맴돈다.

‘좋아한다.’

세상과 가깝지 않은 박준 시인은 ‘좋아한다.’라는 미끼 하나로 세상을 퍼 올리는 듯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참 따뜻하다. 그래서 나도 그의 팬이 되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일 거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말이다. 가장 좋아했던 글 한 토막을 더 올리면서, 독자 여러분의 봄도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저와 제 가족이 오래전에 살다 나온 한옥이 기억납니다. 낡은 그 집의 뒷마당에는 라일락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제 방 창문을 열어 팔을 뻗으면 나뭇가지의 끝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저도 좋아했고 당시 함께 살던 고양이 홍이도 좋아했습니다. 홍이는 나무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면 홍이는 제 방과 가까운 가지 끝에 죽은 쥐를 올려두었습니다. 죽은 쥐를 냉큼 받아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번 고마웠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분명했으니까요.”(31p)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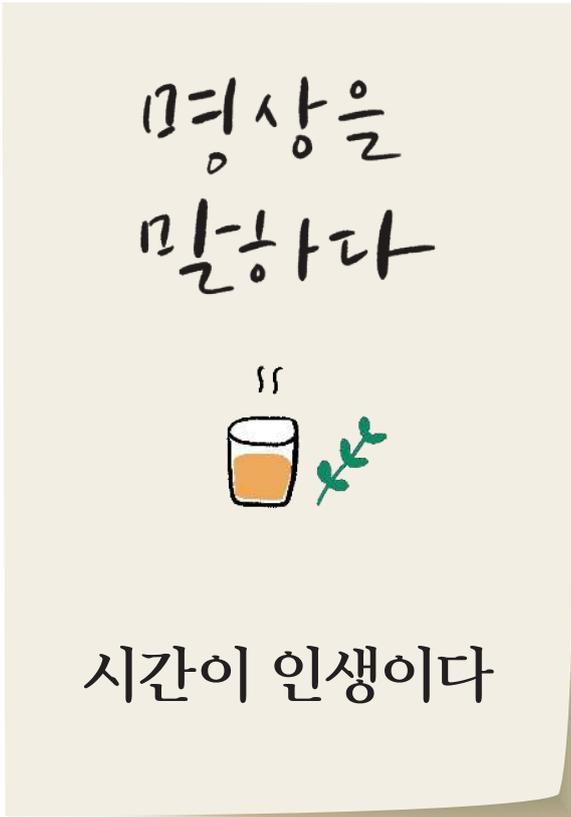


『계절 산문』
박준 지음
달 펴냄



글쓴이

현재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Time is life!

시간이 인생이고, 인생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한된 시간을 살지요. 80살을 산다면, 대략 70만 시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은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 인생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인생이며, 인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지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나 철저하게 알고 있나요?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자신이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야 하겠지요.

우리는 모두 지나간 시간이 나에게 준 가르침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의 시간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어떨까요? 여전히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칭찬받을만한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후회하고 기대하면서 성장하지요. 인생이라는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고, 모든 경험은 나의 스승입니다.

“모든 경험은 나의 스승입니다.”

생활인으로 명상을 해 오고 있는 저의 경험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내 몸과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됩니다.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려야만 그것을 제대로 잘 경험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지요. 결국,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잘 알아차리면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에 선부르게 해석을 덧붙이거나, 서둘러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또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내 생각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그 판단 말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 알아차린다는 건 나에게 오는 정보들을 잘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내게 경험되는 정보들을 충분히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들이 수집되면, 적절하고 합당한 판단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맞는 정보들이 모인다면 그에 따른 결론도 보다 실제에 맞게 내려지겠지요.

하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정확한 정보들을 충분히 모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결론은 실제와 달라서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챙겨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선불리 판단을 내리려고 서두르기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실제 상황과 어긋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게 되지요. 따라서 인생을 좀 더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명상 격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이야기가 길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야기가 짧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 사실을 얼마나 사무치게 알고 있나요? 지나간 과거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내 기대 안에만 있을 뿐,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후회를 붙잡고 있거나 지금 여기에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가 짧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채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챙겨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일상을 회복하는 밥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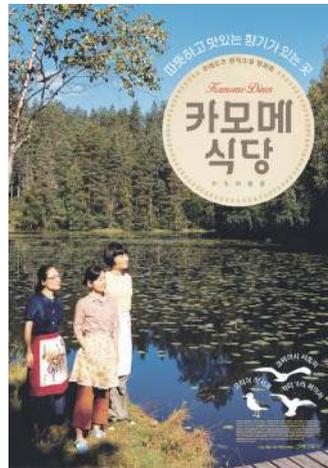
“맛은 화학과 생리학 사이, 역사와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샤페의 맛에 대한 해석은 꼭 영화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한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요리는 스크린 너머의 관객과 연금술과도 같은 화학 작용을 일으킵니다. 영화 『카모메 식당』 역시 그렇습니다. 노릇노릇 돈가스를 튀기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고,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시나몬롤의 색깔은 우리를 빵집으로 향하게 만드니까요. 보는 것과 먹는 것은 이렇게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요리 영화들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떡방’의 등장 또한 예고된 것이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확실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두를 지치게 만든 작년 한 해 잃어버린 입맛을 단번에 되찾아줄 영화, 『카모메 식당』 속 카모메 식당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이들이 모입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떠나왔지만 이제는 함께 주먹밥을 만들고 커피를 끓여 마시며 “맛있다”를 연발하는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일상과 마주할 힘을 얻죠. ‘밥심’과 ‘밥정’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작은 식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뜬금없이 생긴 일본 가정식 식당은 썰렁하지만 음식 냄새와 온기에 차츰 테이블이 채워지고 주인 사치에(고바야시 사토미)는 동료도, 이웃도 생깁니다. 그제 떠나고 싶은 생각에 지도를 펼쳐놓고 찍은 핀란드로 온 미도리(카타기리 하이리), 오랫동안 간병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떠나온 마사코(모타이 마사코)까지 카모메 식당을 다시 시작점으로 놓고 새로운 일상을 꾸려갑니다. 오기가 미 나오코 감독은 “왜 핀란드였나”라는 질문에 “미국, 유럽, 영국, 프랑스도 아닌 다른 느낌이랄까. 핀란드에 가서 굉장히 놀란 건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혀 뛰지 않는다는 거다. 초조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놀면서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라고 답했는데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모습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있는, 쉽사리 꺼내 보이지 않는 부분들 말이죠.

일본을 떠나온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해 보이는 사치에는 부모님과 고양이까지 잃었으며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식당을 차릴 결심을 했을 정도로 나고 자란 곳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미도리 또한 사치에가 차려준 밥상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상처를 받고 떠나왔으며 마사코 역시 한없이 차분해 보이거나 부모님의 오랜 간병으로 지치고 갈피를 잃은 상태죠. 그러나 영화는 이들에게 어서 가까워져서 온갖 사연을 캐묻고 얼싸안고 울어버린 뒤에 상처를 재빨리 봉합하고 끈끈한 사이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타버리고 낮은 온도에서는 속까지 익지 않는 돈가스처럼, 이 적당한 거리감은 지치고 외로웠던 서로에게 다시 시작할 의지를 조금씩, 그러나 차곡차곡 채워줍니다.

“『카모메 식당』에 나오는 음식들은 제각기 다 맛있어 보였다. 아니, 맛있어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뭐랄까 ‘행복’이라는 것을 꼭 쥐어서 형태로 만든 듯 매우 인상적이었다.” 『카모메 식당』의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지마 나미의 요리에 대해 일본의 한 신문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드라마 『심야식당』, 영화 『안경』, 『남극의 웨프』 등의 음식을 만든 이지마 나미의 요리는 화려하기보다는 보는 이를 마음 편하게 해주죠. 인물들 간의 대사가 적은 편인 『카모메 식당』에서 그 빈 곳을 특유의 온기로 채워주는 것 또한 따뜻한 음식들입니다. 위로를 건네는 대신에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고, 향긋한 빵을 구워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뭅니다. 시나몬롤, 연어구이, 고기감자조림, 돈가스 등 다양한 메뉴들이 포진한 『카모메 식당』의 식탁에서도 가장 큰 존재감을 지닌 음식은 주먹밥입니다. 주먹밥은 단순하고 투박한 음식입니다. 하얀 공에 검은 종

이를 싣는 것과 같은 낯선 모양은 핀란드인들에게 선뜻 선택받지 못했죠. 처음 마사코가 주먹밥을 먹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이들도 사치에의 식당이 그러하듯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복잡하지 않은 맛에 금세 배를 채워주는 든든함이 소박한 음식을 즐기는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맛을 거라는 사치에의 예상처럼 딱 들어맞은 것이죠. 여러분 또한 소박한 주먹밥을 닮은 이 맛있는 영화를 천천히 꼭꼭 씹어 즐기시고, 다시 세상에 나갈 에너지를 얻으시길. 영화 『카모메 식당』, 맛있게 보세요.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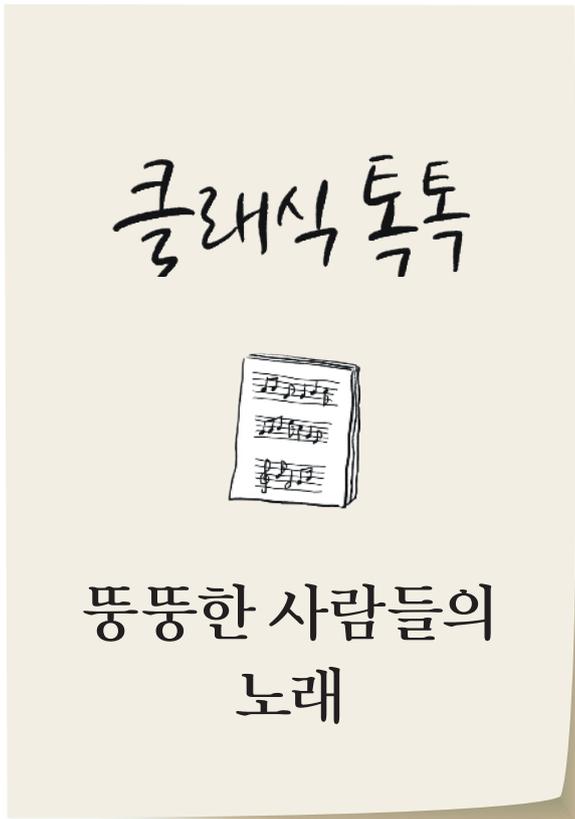


영화 『카모메 식당』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풍채 좋은 성악가 남녀가 나온다. 압도적인 성량과 기량을 보이지만 궁금하다. 왜 저렇게 비대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까.

음악사에서 노래는 매 시대의 발전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중세에는 장터나 도시를 돌아다니며 관중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을 음유시인이라 불렀다. 내용은 주로 십자군 전쟁 기사의 영웅담부터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설화나 전설이 그 주제였다. 사람들은 음유시인들이 펼쳐놓는 이교도와 용과 싸우는 기사, 그리고 공주와의 러브스토리에 매료됐고,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 또한 인기 소재로 여겼다. 중국에선 초패왕(楚霸王) 항우와 애첩 우희와의 애절한 사랑으로 유명한 패왕별희라는 경극이 가장 인기였고, 명나라 시대엔 삼국지의 조조 역할을 하던 배우가 흥분한 관중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만큼 몰입도도 뛰어났다. 우리나라도 전기수라는 직업이 조선후기에 성행했는데, 장터에서 소설이나 야사를 읽어주는 직업이었다. 여기서도 임경업 장군을 음해하던 김자점의 대목에서 흥분한 관객이 전기수를 칼로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래에 이야기를 엮는 형식이 가장 인기 있었다.

실력이 뛰어난 음유시인들은 류트¹⁾나 비파²⁾같은 악기 반주로 노래를 했고, 종종 귀족에게 초대를 받아 궁정이나 저택에서 연주를 했다. 유럽은 세속음악을 대리석 살롱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불러들였고, 당대 유명시인의 시와 작곡가들의 음악이 만나 가곡이라는 장르가 발전했다. 종교음악도 대리석 재질의 울림이 좋은 성당에서 무반주 아카펠라로 하는 합창음악이 발달했는데, 이후엔 성서의 내용을 대규모 합창단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음악극 형태로 풀어내면서 성경 주요인물이 솔리스트로 등장하는 미사곡이나 오라토리오 같은 장르들이 나왔다. 솔리스트는 합창단보다 더 고도로 훈련된 직종으로, 합창과 관현악의 볼륨을 뛰어넘는 발성법과 고음역을 구사해야 했다. 당연히 성량에서 유리하려면 좋은 성대는 물론, 소리를 공명과 압력으로 증폭시켜줄 수

1) 16세기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발현악기
 2)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중 안팎에서 널리 연주되었던 발현악기

있는 커다란 가슴 흥곽과 복강, 그리고 고음역을 지탱해 줄 강한 코어근육이 발달해야 했으니 체격이 좋고 목청이 좋은 사람들이 유리했다.

17세기에는 일반 대중을 겨냥한 상업 오페라 극장들이 생겼다. 기존의 궁정 살롱이나 성당처럼 돈을 들여 내부와 외부전체를 대리석으로는 바르는 대신, 많은 객석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석 돔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를 거대한 목조의 음향 공간으로 꾸몄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리석보다 덜 울렸다. 내부전체가 대리석이 있어도 문제인 게, 이때부터 슬슬 금관 악기들이 오페라 반주로 합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치 목욕탕처럼 울려서 더 골치 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극장에서 솔리스트에게는 합창과 관현악 반주와 구분되어 들리기 위해 더 정교한 발성법이 요구됐고 멜로디에서도 두드러지게 돋보일 수 있는 선율과 기교, 고음역이 주로 배치된 이른바 ‘벨칸토’ 창법이 나오기 시작했다.

19세기 낭만 시대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과 복잡한 화성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반주 볼륨도 커지고 복잡해져서 솔리스트의 역량이 더 요구됐다. 반주부가 더 웅장해지고 두꺼워졌다는 얘기가. 기존 바로크나 고전음악은 반주부에서 주로 화성을 표현하고 펼친 화성을 쓰면서 솔리스트 멜로디와 주고받으며 어울리는 역할이었다면, 낭만주의는 음악의 특성상 다채로운 화성과 음색을 중요시했다. 특별히 주선율을 강조하고 싶다면 멜로디에 악기가 같이 따라붙기도 했는데, 주인공 멜로디를 제1바이올린 8대 전체나 관악파트 전체가 같이 연주하는 경우도 생겼다. 마이크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악기 여럿이 똑같은 선율을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자. 문히기 딱 좋다.

그래서 더 발성법에 차별이 필요했고, 단순히 음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고밀도의 공기압축을 동반한, 반주부에 묻히지 않는 고유한 색채의 질감으로 뚫어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도 기교적인 발전으로 따라잡는 것보다 물리적인 발전이 더 빠르게 요구된 셈이어서, 19세기 오페라 주역들은 일단 울림통이 좋아야 했기에 대체로 체구가 커야 했고 이전보다는 더 고도의 훈련을 요구받았다. 음악이 화려해질수록 가수가 할 일이 많아진다.

비대한 성악가의 이미지들은 이때 굳어진 것이다. 현대의 가수들은 세월을 거쳐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로 상당 부분 소화해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첩하고 예민한 연주와 연기를 구사한다. 그래도 장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조금만 살펴보면, 시대나 장르별로 음색과 가수의 질감과 중량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조건 커야 좋다는 게 아니다. 스포츠의 체급별 차이다. 구현해야 할 음악이 서로 다른 것이다. 마이크를 대면 되지 않냐고? 라이브음악이 주는 감동과 전율을 아는 사람에겐 통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라이브음악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스피커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될듯하다. 전자신호의 변환이 아닌 공기의 울림과 진동을 그대로 고막과 온몸으로 전달받는 경험은 차원이 다르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집관’과 현장에서 감동과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는 직관과는 천지 차이인 것처럼. **AF**



글쓴이

목원대 교수, 오페라 가수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구독의 전성시대

여러분은 지금 구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다양한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음식부터 술, 독서, 영상, 침구,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정기 결제를 하는 구독의 성격을 가지고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구독경제의 시대에 산다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돈이 만만찮음에도 구독을 계속해서 권하고 또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큐레이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은 원하는 특정 정보를 선별한 후 제안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큐레이션, 즉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골라서 꼬박꼬박 제안해주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험은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다 소유할 수

는 없을 테니까요. 경험할 것을 고르는 데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전문가가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고 꼭 집어주길 바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독 제안은 궁극증을 유발하는 흥미로운 것이 되는 거죠. 특히 MZ세대는 세분화된 나만의 특별한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합니다. 저도 구독경제의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프레시코드(FRESHCODE)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시간에 간단하지만 맛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는 장소로 샐러드를 배송해준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더욱 살뜰하게 살피는 MZ세대와 더불어, 건강을 위해서라면



출처: 프레시코드(FRESHCODE)



출처: 퍼블리(PUBLI)

뭐든 마다하지 않고 챙겨 먹는 시대의 풍조로 샐러드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샐러드’ 하면 폴과 소스에 닭가슴살만 있던 과거와는 달리 ‘프리미엄 샐러드’를 표방하는 다양한 정기 샐러드 배송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위워크(WeWork) ‘크리에이터 어워드’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급부상한 브랜드가 바로 ‘프레시코드’입니다. 직접 배송,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거점 배송 서비스 ‘프코스팟’으로 배송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프리미엄 샐러드 브랜드답게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들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브 메뉴들까지 선보이며 건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메뉴 선택폭이 넓고, 배송된 샐러드 자체가 신선한 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배송까지 해주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랜선 사수가 되어줄게, 퍼블리(PUBLY)

회사에 입사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생깁니다. 신입사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배들은 다 바빠서 누구에게 물어볼지 몰라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때면 요즘 많은 사람이 ‘퍼블리’로 접속합니다.



글쓴이

교육 브랜딩 전문 ‘헤이데이 컴퍼니’를 운영하며, 영화 『로맨틱 헤븐』 타이틀 작업, 루미나 컬러테라피 전문가 과정 수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저 또한 칼럼을 쓰면서 회사생활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제 분야가 아닌 업무를 해야 할 때 퍼블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퍼블리는 원래 저자들의 소식을 전하던 플랫폼이었는데, 최근 1년 사이 ‘랜선 사수’로 자리 잡고 업무에 도움 되는 다양한 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무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솔루션, 재테크 정보 등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각종 비즈니스 정보와 트렌드에 대해 알고 싶다면 퍼블리를 추천합니다.

같이 영화 볼래? 우리 함께 왓차(WATCHA)파티 가져!



출처: 왓차(WATCHA)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NETFLIX)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대표적인 OTT 서비스 브랜드 ‘왓차’는 최근 ‘왓차파티’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영상을 보며 대화를 나

누고 싶을 때, 파티방을 개설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고를 때 누군가의 추천이 매우 중요한 편인데, 인공지능에 의한 추천이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함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혼자서는 안 볼법한 영화들도 보게 된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배우 유이나,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호스트로 참여해 영화를 감상하는 ‘라이브 코멘터리’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선정한 영화를 다루는 라이브 코멘터리 콘텐츠는 영화마니아들을 왓차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로 왓차의 평균 재생수는 이전 대비 약 400~500% 상승했다고 합니다. 브랜드와 구독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렇게 제가 자주 애용하는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독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나만의 취향을 전문적으로 큐레이션 해주는 다양한 구독서비스를 이제는 유심히 봐주세요. 재미있는 요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감사할 줄 아는 여유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과 해맑은 미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얼굴을 마주 본 채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감사 표현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에게도 베풀기 어려워진 감사. 하지만, 최근 나와 일면식도 없는 택배기사와 따뜻한 마음을 나눈 훈훈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택배기사들을 위해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배송 기사님.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드세요.’라는 문구와 함께요. 이분은 1년 넘게 간식 바구니를 복도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간식 바구니를 준비해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택배기사의 수고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최근 이분은 택배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 CC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CCTV 화면으로 본 택배기사가 음료를 하나 집어 들더니 고개 숙여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택배기사들이 아무런 말 없이 간식을 가져가거나 혹은 그냥 지나칠 때, 이 택배기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의 수고를 더했습니다. 택배를 내려놓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려 인사까지 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한 택배기사였지만, 거주민이 남겨놓은 성의의 표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시기, 우리에게 따뜻한 회복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회복제는 거창한 약도, 고급스러운 음식도 아닙니다. 업무와 삶에 지친 상황에서도 서로가 나누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거주민은 택배기사의 행동에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에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작은 여유를 가질 때,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오늘 하루 유독 지쳐 보이는 동료
가 있나요? 동료에게 살짝이나마 감사의 말을 전
합시다. 감사하단 말 한마디로 추위를 이겨내고 따
뜻한 봄을 맞이합시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이은지 양(12세/국방대학교 중령 이진기 자녀)

전투조종사

푸른 하늘을 날며 멋진 구름과 풍경을 건너고
 맑은 강을 건너며 물고기와 인사하고
 커다란 산과 대화하고
 웅기종기 평화로운 집들을 지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언제 떠날지 몰라도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면서도
 5,000만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조종사와 그의 곁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멋진 전투기

그리고...

그 멋진 전투기보다 더 멋진 조종사는
 존재만으로도 빛나고
 그의 국민들을 지키려는 마음은 영혼마저도 아름다운
 그는 대한민국의 진귀한 보물이다. 

책읽는 공군

글 | 상병 이재건(공군기상단 기지중대)

독자의 문학적 본능을 자극하는 천명관의 가작

“문학의 본질은 ‘재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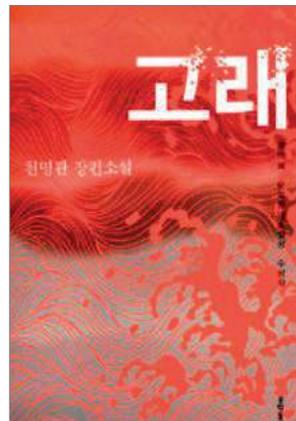
문학을 정의하는 아주 명료한 답변입니다. 문학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자면 작가의 메시지부터 시대적 성찰의 깊이까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작가와 독자의 상호관계 속에 놓이는 문학의 매개적 특성상 작품의 ‘흡인력’ 또는 ‘재미’를 배제하기란 어렵습니다. 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든 독자가 작품을 읽게 만들고 그 세계에 몰입하게 만드는 작가의 입심만큼 직관적인 가치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명관의 『고래』는 소설적으로 매우 출중한 고지에도달해있는 작품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소 과언하자면 장편 소설을 쓰고자 하는 작가는 무릇 이 작품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감상을 감히 내놓고 싶습니다.

본 작품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세 인물의 일대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밥집 노파 - 금복 - 춘희’로 이어지는 세 여성이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들은 한국전쟁기 이전부터 하이칼라의 시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대’라는 가상의 공간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들이며 그들의 모습은 현실적이기보다 마술적이고 환상적이라는 표현에 더욱 가깝습니다. 가령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 남자 ‘걱정’과 춘희의 모습, 무언의 대화를 넘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는 코끼리 ‘점보’와 춘희, 그리고 수많은 별떼를 이끌고 다니는 ‘애꾸’ 등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천명관의 『고래』를 읽다 보면 남미 소설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마술적 사실주의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부두 - 평대 - 벽돌공장’으로 이어지는 대단한 규모의 세계관이 마치 과거에 실존했을 것이라 믿게 되며, 당장이라도 ‘평대’를 찾아가면 금복이 동경하던 고래

의 모습을 한 극장 한 채가 우뚝 서 있을 것 같다는 감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천명관의 입심이자 『고래』의 다채로운 서술 방식입니다. 『고래』에는 천명관 특유의 영화를 보는 듯한 소설 전개 방식과 소설 내에서 다각화된 인물 조명 방식 등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들이 무수합니다. 소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분명 그 화려한 세계에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소 시대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내 ‘그래서 무얼 말하고자 하는 건데?’라는 감상을 지우기란 어려우나 『천일야화』의 가치가 위대한 ‘스토리텔링의 파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명관의 『고래』 역시 대한민국의 소설 계보에 충분히 족적을 남길 만한 가작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려한 소설의 내레이션을 따라 『고래』의 세계관에 빠져들어 몰입하게 되는 경험은 분명 대한민국의 모든 소설 독자들에게 권해줄 법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천명관으로부터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과 보르헤스의 『픽션들』의 감흥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 번쯤은 천명관이 펼치는 당돌하고도 유

쾌한 이야기의 향연에 빠져보아도 좋을 것이라 힘을 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래』
천명관 지음
문학동네 펴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리디쿨러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시리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거대해지기 전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 시리즈는 바로, 『해리포터』다. 『해리포터』는 2000년대를 소년, 소녀로 살아온 이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그들은 주인공과 함께 자랐으며, 영화가 완전히 끝난 지금도 『해리포터』는 빛나는 추억으로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되고 있다. 지난 1월, 『해리포터』의 첫 영화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방송 채널, HBO(Home Box Office)에서 〈해리포터 20주년 기념: 리턴 투 호그와트〉 작품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해리포터』 출연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정리하며,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다시금 추억에 젖어 드는 시간을 선사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잊히지 않는 건 영화 속 수많은 마법 주문들이었다. 어릴 적 마법 주문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지 주문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화를 다시 보며, 주인공들이 주문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주문은 “리디쿨러스(Riddikulus)”, 바로 보가트를 퇴치하는 주문이다. 보가트는 형체를 바꿀 수 있는 마법 생물로, 마주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상으로 변한다. 마주치는 사람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보가트는 그 두려움을 먹고 더욱 커진다. 인간의 감정을 먹는 보가트를 물리치기 위해 마법사는 지팡이를 들고 간단히 한마디만 외치면 된다. “리디쿨러스”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은 쉽게 주문을 외치지 못한다.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그 한마디를 외치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무서워하는 대상과 함께했던 안 좋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무기력해졌다. 긴장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수군대는 주변 친구들의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 그대로 두려움에 잠식되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그들은 깨닫는다. 내가 마주한 대상은 가짜라는 것을.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정신을 부여잡고 주문을 외쳤다. 그 후, 그들의 눈 앞에 펼쳐진 모습은 우스꽝스러운(Ridiculous) 모습으로 변한 작은 보가트였다.

미국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소설 『대지』의 작가 펄 벅(Pearl S. Buck) 여사는 “두려움은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든 치러내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우리 생각과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미래를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움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허상의 장애물이다. 마음 한구석에 억누르거나, 그저 회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당당히 마주한 채 “리디쿨러스”라고 외쳐보자. 혹시 모르지 않는가. 두려움의 크기만큼 우리가 더욱 성장할지도.

마른 땅에 싹이 피어나듯, 시작을 상징하는 3월. 각자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다짐했던 것들을 떠올려보자. 혹시 두려움에 선뜻 도전하지 못했다면, “리디쿨러스” 주문을 기억하자. 어느 순간 두려움을 넘어 성공을 거둬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AF

마음의 소리

황진욱

hjlw85**@naver.com

2월호에서 공군 전용서체가 제작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서체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의 위상과 이미지가 제대로 전해집니다. 읽기에도 편하고 시선도 잘 가는 아름다운 서체인 것 같습니다. 제작에 힘쓰셨을 모든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합니다.

(AF. 서체에 담긴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 기쁘고 부듯합니다. 앞으로 서체 사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cione**@daum.net

이번에 월간『공군』을 알게 되어 구독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과 정성이 필요한 일일 텐데, 현재 장병들 위주로 홍보가 더 되면 장병도 군 생활에 자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고, 가족들도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Book도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월간『공군』을 받아볼 생각을 하니 벌써 기대가 됩니다.

(AF. 월간『공군』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월호는 초임 공군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 다채로운 공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석

ynhe**@hanmail.net

이전에는 무인기가 단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Aero Detail>을 통해 무인기의 역사를 포함해 무인전투기 및 유무인복합체계(MUM-T), 미국·독일·영국 등 항공선진국들의 무인전투기 개발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 공중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인전투기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머지않아 우리 공군도 무인전투기 최강국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AF. 이번 3월호 기획 <공군 미래기획센터>를 보시면 그 기대가 곧 현실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공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구독 문의 QR코드



독자 의견 QR코드

접수방법

마음의 소리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5 2 5